

구술사 방법론을 활용한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주는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분석*

The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of Adolescent School Students on School Bullying Prevention by Using Oral History Method

박종구**

Park, Joung-Koo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여가활동들의 학교폭력의 예방효과를 밝히는데 주안점이 있다. 자료는 11명의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얻은 구술 채취내용을 토대로 분석되었다. 여가활동이 학교폭력의 예방에 주는 효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만 청소년의 여가 참여는 이들의 사회적 기술의 함양, 정신적인 건강의 증진, 과도한 스트레스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적인 여가활동은 학교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스트레스 없이 급우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상호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해 갈등 자체를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

핵심용어 : 여가활동,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구술사 연구방법

ABSTRACT : The study investigated preventive effects of leisure activities on adolescents' school bullying behaviors. Data were analyzed with 11 middle and high schoolers who harassed their classmates, by oral history method using transcriptions of planned interviews. The respondents believed there were some or little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on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However, adolescent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would help the students develop social skills, improve mental health, and reduce redundant stress. Especially participation of interpersonal activities was associated with substantial benefits to adolescents, in areas including physical health and dissolution of conflict between the friendship relation.

Key words : Leisure activity, School bullying prevention, Oral history method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21311).

**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부교수. e-mail: jkpark85@dongguk.ac.kr

I. 서 론

정부의 노력으로 학교폭력은 줄었지만¹⁾,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집단지름', '왕따 문화'는 가해자가 명백한 폭력(금품갈취, 빵 셔틀, 일진회)에서 언어적 폭력처럼 가해자를 짊어내기 어렵게 변화하고 있다(김현수, 2012). 학교폭력의 원인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영화인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등의 '동조폭력', 억압적인 사회구조에서 발생하거나 청소년 시기의 자기중심성, 과시욕구, 분노표현, 지배욕구 등으로 인해, 그리고 폭력 피해자의 경우 낮은 자기표현, 위축적인 태도, 나약한 태도 등이 결합되어져 나타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Donnelly, 1981).

최근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왜 이것이 발생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 해결방법 중에 하나가 청소년의 여가활동이다. 여가활동의 효과와 관련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 전자는 여가활동이 분노표출과 욕구불만, 스트레스, 긴장을 해소시켜 건전한 인성 개발과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여가활동 자체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문제행동과 일탈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Godbey, 1978). Jensen(1977)에 따르면 여가생활에 불만을 느끼면 음성적 활동, 즉 알코올, 흡연, 골목길 싸움, 약물중독 등에 빠져 들 수 있다고 하였다. Hirschi(196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여가시간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낼 수 없을 때 비행적인 행위에 쉽게 빠져든다고 하였다(조남홍, 2011, p.96 재인용).

그동안 체육·여가학에서는 학교폭력과 레크리에이션의 효과(권선애, 2013), 교육학 및 사

회복지에서는 공격성 저감프로그램의 개발(김상곤·정연정, 2005), 공공분야에서는 치안도우미의 부재(정우일, 2012)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였지만 아직 여가(관광)학 분야에서는 여가활동의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관광학 분야에서도 여가활동이 타인의 이해, 자중자애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협력·절충의 갈등해결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밝혀왔다(송영민·이훈, 2006; 정철·고미영·오상훈, 2011). 다만 여가활동의 효과를 발휘할 때 스포츠활동, 문화활동, 미술, 원예, 음악감상 등의 내/외재적 여가활동을 예측변인으로 활용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향상, 우울 및 불안감의 해소 등을 규명하는 인과관계에만 초점을 둔 계량적 접근에 치우쳤다. 따라서 기존 계량적인 방법론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여가활동과 학교폭력의 예방효과 사이에서 작용하는 매개적 기능에 주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술 채취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 행위(금품갈취, 빵 셔틀, 일진회)와 '집단지름', 왕따 문화를 겪은 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첫째,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원인, 여가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행동/심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여가활동이 가진 학교폭력의 예방 인식정도 및 자신감의 회복을 대인적 여가활동, 내재적 여가활동으로 구분해 그 효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있어서 여가활동이 가진 긍정적 기대효과를 탐색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1)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피해응답률은 1.4%로, 2013년 2차 1.9% 대비 0.5%p 감소)은 물론 가해응답률(가해응답률은 0.6%로, 2013년 2차 1.0% 대비 0.4%p 감소)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의 개념과 주된 원인

학교폭력의 범위는 매우 넓다²⁾. 주로 집단 괴롭힘·집단 따돌림, 왕따 등의 용어로 폭력적·공격적 행위의 한 유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에 기반하고, 한명,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개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폭력 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다(Samivalli, 2010). 학교폭력은 직접 폭력과 간접 폭력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구타,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조롱, 듣기 싫은 별명 부르기, 욕설처럼 언어폭력이 해당된다. 후자는 사회적 배제, 헛소문이나 뒷말 퍼뜨리기 등이다. 평범한 청소년들도 언제든지 학교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죽음이나 자살시도로 이어지거나 오랜 후유증을 남기는 것은 동일하다(Samivalli, 2010). 학교폭력은 학생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첫째, 신체적 폭력은 가볍게 위협하며 싸우는 정도, 둘째, 언어적 폭력은 상대방을 놀리거나 비꼬는 행위, 욕설을 하거나 단점을 말하는 행위, 셋째, 심리적 폭력은 상황적 협박과 강요, 거부하기, 겁주기, 무시하기, 괴롭힘, 넷째, 집단 따돌림은 은근히 따돌리기, 무시하기, 고립시키기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소외

시키는 행동, 다섯째, 금품갈취는 학생끼리 돈, 물건을 빼앗는 행위 등이다.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은 성인에 육박해 가지만 인지능력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충동성과 감정폭발을 잘 제어하지 못하기에 발생한다. 심리적 불균형은 청소년기의 강한 충동성을 억제하는데 문제가 되며 또래그룹의 자극에 의해서 일탈행동이나 비행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둘째, 부모의 불화,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 결손가정, 가정의 빈곤, 가정폭력 등이 요인이 된다. 부부간 갈등이나 이별로 인한 결손가정, 가족간의 갈등, 부모의 감시나 훈육 스타일로 구별해 볼 수 있다(곽금주, 2008). 셋째, 학생의 개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진로지도, 학교의 주입식 교육, 시험성적에 의한 단선적 평가로 인해 학급 친구간에 있어서 우정보다는 경쟁관계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에게 강한 불안과 분노를 경험하게 하고 일부 청소년들은 불량서클을 통해 소속감을 확인하고 공격적인 하위문화에 편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중매체의 폭력 프로그램에 과도한 노출이 학교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둔화시킬 수 있다. 즉 폭력적인 TV프로나 영화, 비디오 물, 학교주변 유해 환경, 청소년 놀이 공간의 부족 현상, 청소년 문제에 대한 방관자적

〈표 1〉 학교폭력의 분류와 대표적 사례의 괴롭힘

	싸움	병리 행동	폭행	뒷 담화	괴롭힘
가해자 상태	홍분/격분	정신병리	홍분/격분	정상	정상
피해자 상태	홍분/격분	무차별	두려움/위축됨	불쾌함	두려움/위축됨
의도성	우발적	의도적	우발적	의도적	의도적
지속성	순간적	지속적	순간적	지속적	지속적
폭력강도	강함	예측불가	강함	약함	약함
주요 폭력수단	신체	무차별	신체, 언어	언어, 간접	모든 종류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장난수준의 수위를 조금 벗어난 행위부터 잔혹한 범죄 수준의 행위까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 外보다는 학교 內에서 동급생의 관계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한다.

태도 등을 들 수 있다(최자은, 1998).

2. 여가활동의 학교폭력 예방효과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불안감의 건전한 해소, 잠재능력의 개발,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비행, 폭력, 범죄, 자살 등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하고, 그들의 심리적 행복감, 즉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지체체의 인격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인터넷, 전자오락, 게임, 잠자기, 간단한 집안일, 스포츠, 친구만나기, 친척방문, 이웃방문 등에 한정되어진 문제점도 있다(이주연, 2012).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중자애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도력 향상의 기회제공, 공동체 의식함양, 민주시민으로서 자질형성, 직업에 대한 탐색과 준비, 학습내용 확인 및 강화 등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의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가치있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공동생활의 태도와 기술, 자발적 활동, 사회적 적응력의 향상, 원만한 인간관계, 행동내성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등도 함께 제공해 준다(송영민·이영진, 2011).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정신건강의 증진행위, 학교생활의 만족도에서 예측변인으로 역할이 중요하였다(이미리, 2013). 이것은 여가활동에 따라 학교생활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되고, 불만족한 여가활동은 심리적 행복감에 무망감을 주며, 우울과도 관련이 깊다.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긍정적인 심리적 안정감과 정신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송영민·이영진, 2011)들이 다수 보고되어, 여가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지원과 사회

관계속에서 안정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프로그램들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높은 이유는 여가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유로운 감정표출이 가능해 학교, 가정, 문화, 사회적 규범 등의 제약을 받아 쌓인 짜증남, 화냄, 따돌림, 비난, 잔소리, 무력감, 열등감, 뒤처짐, 실패, 대화불능, 기분 나쁨, 치밀 등의 감정적 분노를 발산할 수 있는 활로이기 때문이다(지명원·조태영, 2012). 이렇게 쌓인 분노, 좌절감이 학교폭력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낮은 자아개념과 연관되어 주변과 갈등을 증대시키고 개인의 공격성을 높여 학교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은 타인과 가까울수록 치밀어 오름이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멀수록 억압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연구의 필요성

최근 관광학 연구분야에서도 질적 연구(김철원·오정학, 2011; 황희정·김지선·이훈, 2012)가 활발하나 타 사회과학 연구분야와 달리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한범수·김사현(2001)에 따르면 표본수의 부적절성과 임의 표본 방식을 근간으로 한 설문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제한된 자료 수집 방법에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계량적 분석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였다는 자기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질적 연구(근거 이론)는 실용주의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행하는 연구이다.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개인의 능동적인 역할을 중요시하며, 삶에 대한 가변성과 복잡성, 즉 변화(change)와 과정(process)을 강조한다. 이처

럼 사회적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기에 사회현상이 지닌 광범위한 맥락과 조건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trauss and Corbin(1998)에 따른 질적 연구의 과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의 설정으로 “특정 상황이나 어떤 조건 하에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사회 심리적 과정은 무엇인가?”에서 출발한다. 둘째는 자료수집 단계로 연구 자료 수집은 현장 연구의 패턴을 따르게 된다. 셋째, 표본의 설정으로 크기는 생성된 자료에 의해 자료 분석에 따라 결정된다.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근거로 표본을 추출하는 이론적 표본추출은 다음에 어디에서 어떠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한다. 넷째 단계는 자료의 코딩단계이다. 연구자는 첫 인터뷰를 마침과 동시에 자료수집, 코딩, 분석을 시작하기 때문에 연구를 행하는 전 과정이 체계적이어야 한다. 인터뷰, 현장노트, 참여관찰 등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면 연구자는 즉시 자료를 코딩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은 연구 평가의 단계이다.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으로는 첫째, 타당도와 신뢰도, 사실성을 들었고, 둘째, 이론을 정교화하고, 시험하는 연구과정의 적합성, 셋째, 연구의 경험적 근거에 대한 판정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정주영·정철·이훈, 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현상은 인간의 폭력성에 따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교섭 속에서 발생하며 상징적 대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해석과정에서 변형, 발전되는 형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학교폭력의 맥락과 조건의 관찰이 배제되는 양적 연구방법보다는 질적 연구방법이 더 적합한 편이다. 특히 본 연구의 구술사방법론을 활용한 청소년의 여가활동의 고찰은 학교폭력 가해라는 구술 증언을 토대로 과거 기억을 한 사건으로 해 살아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내러티브적 접근이 가능하기에 객관적으로 여가활동이 가진 학교폭력의 예

방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황희정·김지선·이훈, 2012).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인 심층인터뷰를 통한 구술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획득하는 구술사 방법론에 의존한다. 개인의 기억, 구술을 토대로 여가활동이 가진 긍정적 효과를 밝히기 위해 구술사 연구 진행에 앞서 선행문헌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학교폭력을 다루는 인터넷 상담/블로그, 청소년 도움센터 등의 사이트(<http://blog.naver.com/whgnsgn>) 등에서 여가활동이 지닌 학교폭력의 예방효과를 살펴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학교폭력의 가해요인을 부모의 불화, 부모의 양육태도, 결손 가정, 가정의 빈곤, 가정폭력 등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학교환경에서 발생하는 주입식 교육, 시험성적에 의한 단선적 평가,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 교내 친구간에 우정보다는 경쟁관계로 변질된 또래문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었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한 구술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를 대외/내적 여가활동으로 구분해 여가활동이 가진 분노조절, 공격성의 감소,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통해 또래폭력이 어떻게 감소하였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구술사 방법론의 이해

구술사에 대한 정의는 생애사, 자기보고서, 개인적 서술, 개인의 삶 이야기, 구술에 의존한 전기, 회상기, 심층면접 등을 포괄하는 연구방법이다(김귀옥, 2010). 본 연구에서 구술자료는 화자(話者)가 학교생활 내에서 체험한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 앞에서 기억해 이를 현재로 불러오는 구술채록작업을 수행해 얻은 자료이다. 구술자료 중에서도 특히 기억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문서 기록에 근거하지 않고 ‘기억된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어 구술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개인적 혹은 사적인 기억, 그리고 사회적 기억 혹은 집합적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개인에게는 사적인 회상이 존재하지만 사회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집합적 기억이 있으며, 이러한 집합적 기억은 세대 간의 살아있는 연계를 통해서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구술사 방법론에서는 인터뷰, 심층면적, 구술사에 대한 성격 활용방식 및 특성 등이 다르게 접근하는데 주된 절차를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섬세하게 기획한다. 연구자는 구술사 연구 시작, 인터뷰하기, 자료의 정리와 녹취, 사료검증, 자료의 해석, 자료의 텍스트화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함한희, 2010), 연구목적에 알맞게 구술인물 선정, 구술주제, 생애사 방법, 예비 질문지 사전전달, 장소 및 시간, 라포 형성, 구술후기 작성 정례화, 자료의 관리, 채록 원칙이라는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백미숙, 2009). 본 연구에서는 함한희(2010)가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4단계에 걸쳐 구술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누리집(www.stopbullying.or.kr), Youtube 및 인터넷 상담/블로그, 청소년 도움센터 등의 사이트(http://blog.naver.com)에서 여가활동이 지닌 학교폭력의 예방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과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유형을 파악해 학교폭력의 예방에 있어서 여가활동의 효과로 연구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 단계에서 인터뷰시 질문항목들을 구체화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실제 면담을 실행하였다. 구술자와 예비 접촉하여 대략적인 구술주제 및 범위를 사전 협의하였으며, 구술자들과 친밀감(rapport)을 형성하기 위해 준비해 간 질문 외에도 같이 산책하기, 구술자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관한 사적 질의를 통해 구술자가 말문을 쉽게 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 이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카메라와 녹음기 같은 장비사용을 꺼린 경우에는 면담만을 진행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면담자료를 정리하고 검증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였다. 면담

직후 면담 일지를 작성했으며 녹화자료를 정리하고 녹취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문헌기록 및 다른 구술 자료들과 비교 분석했으며, 서술 형식 중심으로 해석해 보는 서사분석과 맥락 중심으로 해석해 보는 재구성적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제4단계에서는 구술사 자료의 텍스트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술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구술사 방법이 문헌자료와 함께 기록되는 역사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점, 둘째, 구술자의 내면의 이야기를 구술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 셋째, 구술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다양한 검증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둘째로 제시했던 ‘구술자의 내면의 이야기를 구술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문헌자료가 기록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장 구별되는 것이며, 구술자와 직접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술사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 된다.

3. 구술사 표본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2차례에 걸친 심층인터뷰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행위와 여가활동간의 관련성을 구술채록을 한 후 전사를 통해 과거 기억을 정리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14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 1인당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은 대학에서 청소년학 박사과정생 2명과 청소년의 여가활동의 공격성향 감소 및 친밀감 증진 등에 관한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구술사 표본의 심층인터뷰 자료수집에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캠프(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전문기관)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들었던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는 중1부터 고2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폭력 행위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학생들은 이미 위기(가능) 청소년 및 학부모의 대상으로 개인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리검사 등을 통해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인터뷰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총 20명으로 인터뷰는 녹취 또는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메모로 인터뷰를 정리하여 녹음된 내용은 분석을 위해 문서화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이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 20명 중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중 여가활동이 학교폭력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설명한 연구참여 11명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확정하였다.

이들중 물리적 폭력이 아닌 따돌림 형태의 가해자가 5명, 동조수준 3명, 물리적 형태의 학교폭력 가해자가 3명이었다. 모두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 물리적 폭력을 떠올리기 쉬웠으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피해 학생을 따돌리거나, 동조하는 형태의 이른바, '왕따'라 불리는 집단 따돌림 형태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IV. 분석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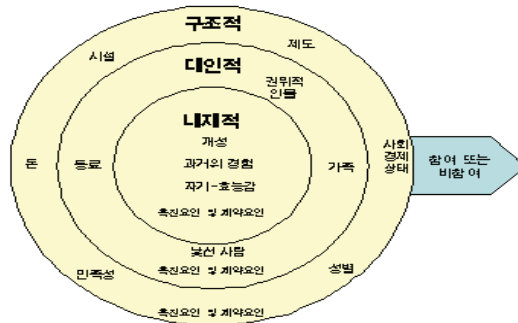
1. 여가활동의 범주화

여가활동을 분류함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기준이 있다. Kraus(1977)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스포츠 참여 및 관람, 여행, 상업적 오락활동, 도박, TV시청, 전자오락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사 방법을 토대로 학교폭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유형화 작업을 실시 한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여가활동의 효과는 여가활동 그 자체의 차이보다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Raymore(2002)가 여가촉진모형에서 밝힌 것처럼 여가활동을 내재적, 대인적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였다.

Raymore(2002)는 여가 제약 요인이 또 하나의 촉진 요인을 가져와서 오히려 다른 여가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여가촉진(facilitators to leisure) 모형'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의 연구에서 여가촉진요인은 여가제약요인의 정의를 이용하여 개념화하였는데, 여가선호를 형성하거나 촉진하며 여가참여를 강화하거나 장려하는 요인들이라고 정의하였다(정란수·이훈·이인재, 2007). 또한 그는 촉진요인은 여가 참여에 직접적으로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성별	학년	거주지	가족관계	학교폭력 여부
A	남	고1	서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형(아버지 이혼)	동조수준
B	여	중3	충북	아버지, 어머니, 언니, 여동생	동조수준
C	여	고2	경기	아버지, 어머니	동조수준
D	여	중3	서울	어머니	따돌림 가해
E	남	고1	서울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남동생	따돌림 가해
F	남	고2	서울	아버지, 어머니	따돌림 가해
G	남	고1	충남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아버지 별거)	따돌림 가해
H	남	중2	서울	아버지, 어머니, 누나, 여동생	학교폭력 가해
I	남	중3	경기	아버지, 여동생	학교폭력 가해
J	여	중2	경기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학교폭력 가해
K	남	중3	서울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따돌림 가해



〈그림 1〉 Raymore(2002)의 여가축진에 대한 생태적 접근모형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환경적 조건(condition)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Raymore(2002)는 생태적 접근모형을 사용하여 수정하였는데, 이 모형은 구조적 제약 또는 축진 요인 내에 대인적 제약 또는 축진 요인이 위치해 있으며, 그 안에 내재적 제약 또는 축진 요인이 위치하여있는 형태를 띤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의 충동감, 분노감, 이런 상황에 노출된 주된 여가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술내용을 토대로 여가활동의 범위는 〈표 3〉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은 남은 시간에 스스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 개인이 자유롭게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충전, 휴식을 겸한 다양한 취미활동이 포함되는 자유로운 시간으로서 육체적인 균형을 위한 활동으로 본다.

청소년들의 주로 여가활동은 운동참여형, 컴퓨터게임, 사교적인 친목도모, 봉사활동 등의 대인적 여가와 정적활동 중심인 혼자만의 여가활동으로 구분된다. 하위범주로는 대인적 여가를 스포츠활동, PC방 및 노래방 방문, 외부에서의 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내재적 여가는 다시 컴퓨터 게임과 개인 취미 감상 등으로 나누었다.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자율학습, 방과 후 학원 수업 등의 학습활동은 여가활동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2.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원인

Sutherland(1977)에 따르면 가정 내에 다른 구성원이 범죄자나 품행불량자 또는 알코올중독자인 경우, 둘째, 편친이나 또는 양친이 사별, 이별 등에 의하여 없는 경우, 셋째, 양친의 무지,

〈표 3〉 여가활동의 개념과 범주구분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대인적 여가	스포츠활동	친구, 동료 등과 함께 하는 농구, 탁구, 배드민턴, 축구 등 스포츠활동
	PC방, 노래방	PC방, 노래방 등 친구, 동료와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
	외부 활동	동료와 산책, 이성친구 미팅, 주말 야외활동 등 사교성이 전제되는 활동으로 친구와의 교제(이동친구 포함), 동아리 활동 외에 종교활동과 수련회 활동 등임
내재적 여가	봉사활동	각종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가사돕기
	컴퓨터 게임	집에서 혼자 하는 컴퓨터 게임 등 여가활동
	개인 취미 감상	집에서 하는 TV시청, 노래듣기 등 혼자 하는 취미생활 외에 문화활동으로 단체활동이 아닌 개별적으로 연극/전시회, 연주회 관람 등도 포함

*: 여가활동의 범주구분은 연구참여자의 구술내용을 토대로 작성됨.

장님, 기타 지각적 결합으로 청소년을 감호하지 못하는 경우, 넷째, 편애, 과잉간섭, 과도한 엄격, 방임, 다섯째, 가정불화, 여섯째, 실업, 저수입 등의 경제적 빈곤의 경우에 학교폭력의 비행자가 많이 발생되었다.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위기는 상황위기와 성숙위기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부모간의 불화, 아동학대, 학교부적응, 친구의 유혹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것이며, 후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자아정체성의 위기이다 (유용석, 2003).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성숙위기보다 전자인 상황위기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로 가족관계가 나쁘다고 인식(연구참여자 A, C, J), 가정형편이 안 좋다고 느낄 때(연구참여자 G),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면담응답자들(연구참여자 B, D, E)이 학교폭력적 상황에 더 높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학교 성적도 낮아(연구참여자 H, K) 앞으로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기도 어렵다는 좌절감(연구참여자 F, I)이 있었다. 대체로 가정형편이 안 좋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족과 부모,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아 이러한 욕구불충족과 학교생활 부적응이 학교생활에서 급우들에 대한 무관심, 소외감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편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게 된 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빚을 지시고, 지방에 일을 나가시면서, 저 역시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고 또 같이 하는 애들이 나름 소중했었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G)

“성적이 낮아서 나는 매사 자신감이 없고 또 친구들이 너무 잘난 체 할 때 짜증이 많이 나요.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지 않아 공부는 포기했구요. 학교를

마친 후 남은 시간에 그냥 전자오락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한테 혼났거나, 부모님들한테 야단을 맞으면 기분이 안 좋으니깐 친구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괴롭히게 되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K)

반면 면담대상자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의 방관자, 또는 동조자(연구참여자 D, F)가 되고 있었다. 일진이나 짱, 앞장 선 힘이 센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따돌리는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게 되고, 또한 학교폭력은 전염성이 높아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학교폭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점도 나타났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애들과 함께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함께 그 애를 따돌렸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D)

“같이 따돌리지 않으면 저도 따돌림 당할 것 같았어요. 원래 같이 생활하면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연구참여자 F)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입장에서 소위 잘 나가는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에 동조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은 가정환경과 무관하며 청소년기의 자기과시욕으로 인해 뚜렷한 이유없이 급우들을 괴롭혔던 청소년(연구참여자 H)는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반에서 암전한 만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힘을 과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기 싫고, 맞기도 싫어서. 공부도 못하는데, 그래도 지기 싫었어요 근본적으로 나쁜 애들과 어울리면 애들이 함부로 못하기도 하니까.”(연구참여자 H)

3. 여가활동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인식 정도

면접대상자들에게 학교폭력의 가해충동이 여가활동을 통해 감소하는 예방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 때는, 반응이 상당히 엇갈렸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본인의 여가활동이 확실히 예방이 되었다(연구참여자 C)라고 하는 반면 일부(연구참여자 D)는 학교폭력에 대해 여가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연구참여자 F).

여가활동 과정에서 욕구불만과 스트레스, 긴장을 해소시켜 건전한 인성개발과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은 연구결과(송영민·이영진, 2011)에서 언급되었다. 여가활동이 친구들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 및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은 확실하다.

“제가 여러 여가활동을 하는 게 확실히 나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 어느 정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되요”(연구참여자 C)

여가활동으로 인한 경험은 즐겁고 긍정적이지 않은 않으며 때로는 불쾌하고 힘겨운 경험일 수도 있었다. 즉 여가경험 자체만으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또는 또래급우에 대한 분노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결국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자기선택권이 없이 강요된 여가활동은 그냥 시간 때우기 또는 시간만 축내는 여가활동으로 볼 수도 있었다.

“초중 학교때부터 방과 후 여가활동이 있지만 거의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었다.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시다. 그냥 시간 때우기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기에 굳이 여가활동

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생각이 바뀌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연구참여자 D)

여가활동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문제행동과 일탈행동을 증가, 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Godbey, 1978). 해외의 경우 여가생활중 상당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음성적 활동, 즉 알코올, 흡연, 약물중독에 빠질 위험성을 엿 볼 수 있다. 자신들의 여가시간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낼 수 없는 경우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비행적인 행위에 빠져들기 쉽다(조남홍, 2011). 그러나 면담결과, 국내의 경우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비행수준과는 상관성이 없었다.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이 높지는 않았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노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탈선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또 여가활동이 우리들에게 염려하는 친구간의 싸움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구요. 전 더 근본적인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친구랑 노는 것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이 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F)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은 여가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영향에 대해 잘 모르겠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정도가 높지 않는 동조폭력을 해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은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등을 낮추어 학교폭력을 예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를 통해 여가활동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효과의 인식은 학생마다 차이가 있으며 뚜렷한 여가활동의 효과가 명확히 구분해 내기 보다는 자기를 둘러싼 급우의 이해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속에 내재된 불만요소를 감정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가활동 자체보다

는 어떤 정서적 반응을 매개체로 해서 학교폭력의 감소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여가활동의 그 자체가 가해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구분 짓게 하고 있지는 않았다. 여가활동에 범주, 즉 여가활동별로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다양하지 못해 학교폭력 가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4. 학교폭력 충동에 대응하는 여가활동의 전략

1) 대인적 여가활동을 통한 학교폭력의 예방효과

학교폭력의 잠재된 공격적 충동, 즉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여가활동은 분노억제와 감정조절을 할 수 있는 전략(친구에게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분노를 가라앉혀 급우간 관계회복을 추구)으로서 효과가 나타났다. 공부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기에 다른 급우, 친한 친구와 방과 후 어울릴 수 있는 여가활동에서 잠시나마 여럿이 무언가를 함께 공유해 서로간의 동질감을 형성시키는데 있어서 여가활동은 의미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여가활동의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급우에 대한 상호이해를 넓히고, 학교생활에서 쌓인 짜증, 치밀어 오름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동아리(연구참여자 C, G)와 봉사활동(연구참여자 B)에서 문화행사를 함께 준비, 기획하면서 잘 모르던 친구들과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공감(연구참여자 D)하는 또래문화가 여가활동을 통해 조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게끔 하는 계기로는 단체로 함께 떠나는 수학여행(졸업여행)(연구참여자 H)은 청소년의 심리적 및 사회적 통합을 도울 수 있었다. 아무래도 온라인보다는 직접 같이 얼굴보고 활동하는 여가활동이 더욱

친구간 정이 들게 하고 동료애를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한 달에 두 번 CA활동을 했어요. 제가 활동한 부서는 문화탐방 동아리였어요. 매 활동마다 친구랑 함께 참여하는 미션을 줬었는데 친구랑 트러블이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이가 회복됐어요. CA활동에는 영화보기, 지역축제 참여, 맛집 탐방 같은 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연구참여자 C)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으로 가 세탁, 청소 등을 하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점수를 채우려 간 것이었지만 그 곳에 계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돕다보니 단순한 이력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순간에는 짜증스러움이 많이 없어지고 부모님께도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연구참여자 B)

“난타를 배우는 동아리에 참가하게 된 후에 복을 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 박자를 맞추다보니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연구참여자 D)

“학창시절에 소풍을 가서(수학여행, 졸업여행) 친구들에 대해서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와 오랫동안 있다 보니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친구의 행동, 성격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도 다 그 친구의 어떤 행동,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 것이죠. 소풍을 가서 밤에 같이 있으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니 그 친구와의 갈등도 없어지게 된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H)

“일단 고등학교의 학생으로 사진 동아리의 부원이라는 소속감이 친구, 선배 사이의 유대관계가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동아리 활동을 벗어나 학교의 공적인 행사와 더불어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선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요”(연구참여자 G)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비행과 범죄행위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Donnelly(1981)의 심층면담 결과처럼 자기감정의 억제성향은 스포츠 활동의 여가참여(연구참여자 A, G, E, I, F)를 통해 경험하게 하는 것 같다. 스포츠(농구,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는 신체적, 심리적, 지적 발달 외에 규칙을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동적이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시켜 자신의 활기참을 표출할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보인다. 또한 스포츠는 사회적 여가활동으로 스트레스의 감소에도 효과적이었다.

“전 농구를 친구들과 하곤 해요. 농구를 통해 공부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 문제나 건강문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A)

“운동을 하다보면 이때에는 친구들과 두루 사귀어서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고 할 수 있는 사이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G)

“친구들과 매일 점심·저녁시간마다 배드민턴을 쳤어요. 배드민턴을 통해 친구들을 두루 사귄 수 있고 얘기 나눌 시간도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생활에 활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내기를 걸어서 더 열심히 치다보면 싸울 일도 생겨요”(연구참여자 E)

“전 탁구를 친구들과 치곤해요. 중학교 때,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점심시간마다 하곤 했어요. 이기거나 지면 내기를 하여 아이스크림을 사주곤 했어요. 한 번씩 집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탁구보다는 그냥 얼굴보면서 얘기 하고 놀았어요”(연구참여자 I)

“축구는 단체 활동에다가 이기고 지고가 결정 되기에 솔직히 갈등도 많이 생겼습니다. 공을 건드리려다가 다치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스포츠로 땀을 같이 흘리며 친해지고 또 축

구가 끝난 뒤에는 서로 수고했다고 하고 서로 칭찬도 해주며 좀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 풀고 연습도 하다 실력이 늘어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기분도 좋고 뿌듯함을 느낍니다”(연구참여자 F)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스포츠 활동은 경쟁속에서 청소년기의 신체적 에너지를 소비시킬 뿐만 아니라 친구간 친밀성까지 형성시켜 짜증이 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은 무모한 용기에 대한 건전한 배출구라는 Betts(1974)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한편 친구들과 공유하는 사소한 여가활동(연구참여자 C, B, K)인 주말 서점방문 후 시내에서 친구와 함께 쇼핑하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은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해소하게 하지는 않지만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기회,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속에서 우정을 쌓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비형식적이며 자유로운 놀이 및 여가상황도 자연발생적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는 여가활동으로 보인다.

“밖으로 나갈 때는 친구들과 모여 시내구경을 가거나 서점에서 만나 책구경 하면서 수다를 떨니다. 어색한 사이라도 한 번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오랫동안 좋은 친구관계가 되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B)

“학원을 마치고 저녁시간때에 친구와 함께 집 근처나 개천 주변 등 산책로를 걸으면서 대화를 자주 나누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좀 더 진지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연구참여자 K)

청소년의 여가활동도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이용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활동이 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성인의 소비적 여가활동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동조화(예: 쇼핑, 노래방이나 PC방 등) 현상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하는 놀이/오락/유흥과 같은 여가활동을 반복하고 있어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노래방이나 피시방에 가면서 어울렸거든요. 사실 우리 동네가 워낙 좁아서 그렇게 함께 놀면 누구를 때리고 그럴 성격이 못돼요”(연구참여자 C)

“방과 후에나 친구 생일에 노래방으로 다 같이 가서 같이 스트레스도 풀기도 하고 뛰어 놀면서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힙합댄스 동아리도 하려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럿이서 어울리다 보니 혼자 소외감 느꼈던 적이 많았는데 그 때 친구들과끼리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뛰어논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요”(연구참여자 I)

만약 이러한 여가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처음에는 친구와 우애를 쌓는 시간으로서 여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지만 학교 밖에서 간섭과 통제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불건전한 행동과 친구, 선/후배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통해 학교 밖의 나쁜 행동에 전염될 우려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 비행행동은 주로 여가시간에 일어나며, 또한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 비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Godbey, 1978). 이들의 낮은 윤리의식 상태에서 나쁜 친구 하나 만으로 즉흥적으로 비행행동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에 이는 다시 학교폭력의 악순환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2) 내재적 여가활동을 통한 자신감의 회복

다른 학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어울리는 여가활동 보다는 청소년들이 혼자서 조용히

내면적 성숙을 기할 수 있는 몰입적/정서적인 여가활동(예: 취미/문화활동)을 할 때 또한 공격적인 충동성(연구참여자 A)이나 분노감이 감소해 여가활동의 중재적 효과가 나타났다(김남선 외, 2009).

본 연구에서도 주변 공원을 걷거나(연구참여자 A, H), 그림그리기, 혼자 자전거 타기(연구참여자 J) 등의 여가활동이 청소년들의 분노표출, 화를 내게 하는 정도를 낮추거나, 또는 문제시 되는 행동을 많이 줄게 하거나, 부모님의 말에 순응하는 행동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면담 응답자들도 평소 나쁜 습관들(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냄; 친구들에게 공격적, 난폭함; 눈치 보기; 화를 참지 못하고 짜증을 욱설 등)이 없어졌던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며칠 동안 말도 안하다가 언뜻 뒤돌아보니 공원 등 야외시설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싸우고 난 후라 기분이 언짢지만 맑은 공기와 새 소리를 들으며 땀을 흘리니 자연스레 왜 싸웠는지 의문점이 생기고 하산할 때 나를 괴롭힌 친구와 앞으로 좋은 우애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A)

“주변을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니 좋았어요. 때론 친구와 함께 걸으며 대화하며 풀기도 했어요, “날씨 좋고 조용한 거리를 걸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진실된 이야기가 나와서 더 잘 풀릴 수 있었어요”(연구참여자 H)

동조폭력의 가해학생의 인터뷰에서 혼자 야외 산책, 혼자 걷기 등의 내재적 여가활동은 스트레스를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자신만의 몰입/통로를 갖고 있는 것은 여가활동의 학교폭력의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추가로 내재적인 여가활동인 자전거 타기, 만화 또는 그림그리기(연구참여자 J)는 청소년의 창의적 소질 개발에 도움이 되는 순 기능 효과가 높았다. 즉 자신이 잘하

는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함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분노상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평소 만화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원래 꿈이 디자이너였던 터라 틈틈이 그림 그리고 일러스트프로그램을 배우며 on-line활동으로 이 방면에 잘 아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괴롭혀도 속으로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복잡하게 누구와 어울려 놀기보다는 혼자 가만히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다 보면 가슴이 덜 답답해요”(연구참여자 J)

결론적으로 내재적 여가활동은 학교생활에서 늘 반복되는 획일적 생활에서 스스로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자아몰입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학교생활 자체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높았다. 또한 강박관념과 학교생활이라는 단체생활에서 오는 메마른 정서에 균형을 잡아 줄 수도 있다. 비록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를 되돌아 봄에 따라 그 자체가 좁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 있었다. 즉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다만 다양한 여가체험이 제공되는 청소년 지원센터가 생활권 주변에 있지 않아 청소년의 '여가활동의 빈곤'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상관없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결과는 학생 서로간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배려의식이 부족이 부족하며, 장난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상대학생이 잘못하더라도 폭력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때 심리적 갈등해소에 있어서 효과가 높을 것이다(청소년 폭력예방재단, 2011).

V. 결 론

본 연구는 여가활동이 가진 학교폭력의 예방 및 자신감 회복에 대응한 여가활동을 대인적, 내재적 여가활동으로 구분해 효과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가진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이 학교폭력의 예방에 주는 효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만 대인적인 여가활동은 학교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스트레스 없이 급우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상호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해 갈등 자체를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 여가활동의 속성(누구와, 무엇을, 어디 시기에, 어떤 활동을 통해)별 세분화된 예방효과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기/타인이해, 자신과 타인 속에서 감정조절 효과를 매개로 해서 학교폭력의 감소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단체 생활이라는 강요, 획일화된 여가활동은 시간축이기에 불과하고 오히려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친구간의 협력과 이해심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자아감 형성에 효과적이었다. 결론적으로 각종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의 생활스트레스의 감소, 자아존중감의 향상, 타인과의 문제해결능력의 함양 등을 매개해 학교폭력의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들은 대인적 여가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회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급 또래집단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져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함께 어울리며 스트레스를 풀다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었다고 한다. 결국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인적 여가활동은 가해와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행동은 효과적인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갈등해결방식의 부재가 곧 강요나 강압,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것이 학교폭력 성향의 청소년들을 조력하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가활동을 통해 친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건이며, 바람직한 갈등해결 전략을 익히게 하는 것은 폭력예방에 대한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주로 스포츠 활동에서 기인하는 신체적 활동유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단순성, 획일성이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들이 즐기는 전자오락, 낚잡, 음주, 카드놀이 등 부정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른들의 관점에서 편견일 수 있음은 경계할 필요성도 있다. 전자오락의 경우 탐식하는 것이 문제이지 Flow의 경험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여가활동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만약 건전한 여가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유희비, 사치, 허영, 놀이/오락 등의 어른 흉내내기형 여가활동(pc방, 영화관, 노래방 등 휴게실에서 시간보내기)은 곧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급우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개연성도 있다.

셋째, 내재적 여가활동은 내현적 자기애(narcissism), 개인주의적 자존감의 함양을 통해 자아의식을 고취하여 학교폭력의 충동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자체는 학교생활에서 오는 무력감, 권태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획일적 생활에서 자아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재적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의 자아 성장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가활동은 친구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를 되돌아 봄에 따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시기의 여가활동, 특히 대

인적인 여가활동은 또래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시간을 보내게 해 소외된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연구자의 가장 큰 고민은 그런데 왜 대인적인 여가활동을 함께 해나가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학교 내부 시스템과 선생님들에게 있었다. 선생님 역시 학교폭력에 대해 문제 심각성은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붙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한 장소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꺼리거나, 회피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연구참여자에게는 선생님이 어떠한 대인적 여가활동에 대한 권유도 없었고, 방과 후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는 전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계량적인 방법론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여가활동과 학교폭력의 예방효과 사이에서 작용하는 매개적 기능, 즉 여가활동 자체가 파생시키는 2차적 보상(예: 급우의 이해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자신속에 내재된 불만요소를 감정조절,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동적 자질함양, 스스로를 되돌아 봄에 따라 그 자체가 좁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한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들의 깊숙한 내면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여부가 여가활동의 유형보다 더 중요하게 학교폭력 예방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들은 불우한 가정환경, 학교생활 부적응, 짜증나는 현실 등에서 자신을 돌보고 상처받은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매개적 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폭력의 충동감소에 더 깊숙이 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행위에 있어서 폭력(금품갈취, 빵 셔틀, 일진회)과 '집단따돌림', 왕따 문화처럼 정서적, 언어적 폭력행위를 포괄해 구

술사 방법론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모든 연구 방법은 그 나름대로의 한계와 단점을 지니고 있듯이 본 연구도 1회성의 심층 인터뷰만을 대상으로 한 점이라든가, 구술상 상황에 동반되는 제스처, 얼굴표정, 음성의 높낮음 및 떨림 등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라든가, 표본상의 제약 등 방법론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 결론에서 도출된 내용들에 대한 제한된 일반화로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의 여가활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따른 특성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이 당면한 여가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효과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성취의 그늘,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한국의 왕따와 예방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55-272.
- 권선애(2013). 학교폭력 학생을 위한 음악치료프로그램. 『대한음악치료학회』, 8(1), 1-10.
- 김귀옥(2010). 구술사 쓰기의 방법과 절차: 사례에 기초한 이론화의 시도. 『구술사연구』, 1(1), 77-115.
- 김남선 · 이옥분 · 정일환 · 주동범 · 한상철(2009). 『청소년 교육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상곤 · 정연정(2005). 고등학교 교과연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학교사회복지』, 9, 61-98.
- 김철원 · 오정학(2011). 중국인들의 한국여행 제약 요인에 대한 극복과정 탐색 연구: 근거이론 접근.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241-255), 한국관광학회.
- 김현수(2012). 학교폭력 연구 방법론에 관한 대안적 고찰: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관점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교육연구』, 35, 179-209.
- 백미숙(2009). 한국방송사 연구에서 구술사 방법론의 사용과 사료 활용에 관하여. 『한국언론학보』, 53(5), 102-128.
- 송영민 · 이영진(2011).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요인으로써 여가만족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609-634.
- 송영민 · 이훈(2006). 여가촉진요인의 구조모형 분석: 주5일수업제 청소년 여가환경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8(2), 7-24.
- 이미리(2013). 청소년기 혼자 시간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활동 내용과 심리상태의 차이. 『청소년복지연구』, 15(2), 175-195.
- 이주연(201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여가활동과 여가기능이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3(2), 21-34.
- 정란수 · 이훈 · 이인재(2007). 여가제약모형의 비판적 재구성: 사회구조와 행위의 통합적 접근. 『관광학연구』, 31(1), 55-75.
- 정우일(2012).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8(1), 177-195.
- 정주영 · 정철 · 이훈(2012). 근거이론을 이용한 장애아 부모의 여가적응과정. 『관광학연구』, 36(2), 301-322.
- 정철 · 고미영 · 오상훈(2011). 진지한 여가성향과 여가동기의 관계. 『관광학연구』, 35(3), 307-327.
- 조남홍(2011). 여가스포츠 사회화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3), 83-102.
- 지명원 · 조태영(2012).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여가만족,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6(6), 145-165.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2011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
- 최자은(1998). 『청소년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범수 · 김사현(2001). 관광학 연구논문의 조사설계방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관광학회 간행 『관광학연구』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5(2), 13-33.

- 함한희(2010).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구술사연구』, 1(1), 7-47.
- 황희정·김지선·이훈(2012). 남성 중심의 여가범주에 대한 여성의 경계넘기: Butler의 젠더 정체성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5), 263-288.
- Betts, J. R. (1974). *America's sporting heritage 1850-1950*. Reading, MA: Addison-Wesley.
- Donnelly, P. (1981). Athletics and juvenile delinquent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a review of literature. *Adolescent*, 16.
- Godbey, G. (1978). *Recreation, park and leisure service*. Philadelphia: W. B Saunders.
- Hirsc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A parental replication and extension*.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 Jensen, C. R. (1977). *Leisure and recreation: Introduction and overview*. Philadelphia: Lea and Febriger.
- Kraus, G. (1977). *Recreation today: Program planning and leadership*. Santa Monica, CA. Goodyear publishing company.
- Raymore, L. A. (2002).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1), 37-51.
- Salmivalli, C. (2010). Bullying and the peer group: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 112-120.
- Strauss, A. L.,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http://blog.naver.com>.
- <http://blog.naver.com/whgnsngn>.
- 학교폭력예방누리집(2015). Retrieved from www.stopbullying.or.kr.
- 2015년 1월 12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5년 4월 24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5년 4월 27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